



4면

체계적인 부모교육 운영
야호부모교육 자문위 기동

전주매일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음 4월 21일) 제25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태원 발 코로나 확산 막아라”

송하진 지사, 감염병 방역 전문가와 대책 머리맞대 사태 악화 우려... 신속한 대응 통한 확산 방지 총력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감염병 방역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효과적 방역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접견실에서 방역 대책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에 따른 유흥시설 등 방역대책 관련 정보를 공

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전라북도의회 백진현 회장, 전라북도병원회 이병관 회장, 익산시 보건소 한병관 소장, 전라북도감염병 관리지원단 이주형 단장, 한국의식업중앙회전북지회 김보연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북도 방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에도 다수의 접촉자와 관련 시설 방문자가 자진신고 하는 등 사태 악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활용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이룬 K방역은 세계 각국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이었지만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북도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으고 도민들의 힘을 합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최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28일 24시 까지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대상시설은 1,029개소(클럽 등 유흥주점 1,001 및 콜라텍 18,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이다.

발령한 이유는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 253명(일본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 확진자 1명, 자진신고 문자안내 2회, 진단검사 행정명령(5.11)계속 조사중이다.

또한 서울 등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젊은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시도로 몰려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김진성기자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전주를 방문,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력 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지지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전주 방문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노동·경제·사회정책 협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2일 전주시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성현 위원장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동욱 중소기업인연합회장 등 전주시 노·사·정 대표들과 화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력’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12일 전주시를 방문해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력 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동욱 중소기업인연합회장 등 지역의 기업계, 노동계, 화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998년 MF 외환위기 이후 약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발생된 실업이 소비위축과 기업위기로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추진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전주시와 기업 대표, 유관기관 대표 등으로부터 해고 없는 도시 관련 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한 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형 일자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기 전체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에 대비해 △신개념 트럭인 세미트럭 트럭 △브넷 수소전기트럭 등 특화차종 개발을 추진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신차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동욱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기업에서도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전주시에서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합심해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해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확산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대책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 백진현 전북도의회 회장, 이병관 전북도병원회 회장, 한병관 익산시 보건소장, 이주형 전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김보연 한국의식업중앙회전북지회 사무국장, 전북도 방역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흥시설 등 방역대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방문 ‘김제 공중보건의’ 코로나19 ‘확진’

5일 방문·6일 선별진료소 근무... 지역사회 확산 우려

김제시청 현직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제시에 따르면 보건소 공중보건의 A모씨가 지난 5일 이태원 주점 및 클럽을 방문한 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

다.

A씨의 주소는 서울시로 ▲5일 오전 0~3시 동행자 5명(음성)과 이태원 주점, 오전 3~4시45분 이태원 파운틴 클럽, 오전 4시45분~5시 국수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오전 5시~오후 3시 한남동 자

택에 머물다가 오후 3~4시30분 용산-익산 KTX 이용, 오후 6시 김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돌아왔다.

그는 6일 오전 9시 김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환자 없음)했으며 이후 보

건진소 관사 ▲7일 오전 9시 보건진료 근무 낮 12~오후 1시 점심(가든) 직원 동행 ▲8~11일 보건진료 근무(환자 30여명 진료), 11일 오후 6시20분 익산시 보건소 검체 채취 ▲12일 오전 3시20분 ‘양성’ 판정을 받고 오전 7시 원광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곽노태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